

진디물 안붙는 無窮花栽培法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를 卑下시키기 위해 선지 일본인은 일제때 무꾸게(むくげ)라고 읽게 했었다. 야릇한 냄새나는 나팔꽃이나 보기싫한 草木이름 앞에는「조선」이란 관사를 붙였는데 일본말의 게(け)는「下」의 뜻과 통하기에 무궁화에만은「조선」대신 게(げ)를 붙인 당시 그들의 속이 들여다 보인다. 무궁화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1907년 10월30일 대한매일신보에 無窮花歌가掲載되었으며 1916年 丹齊 申采浩 선생이 발표한「꿈하늘」小説속에 무궁화 이야기가 나온후 문학작품에 많이 나타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무궁화는 7月10日경부터 10월20일경까지 피는데 7月중순에서 9월말까지가 가장 왕성한 개화기간.

그런데 무궁화에는「진디물」이 많이 붙어 다른 나무도 피해를 입는다는 약점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정원수로 심기를 꺼린다고,「진디물」이 붙지 않는 무궁화신종이 많이 나왔으면,……

도적 맞는 내장산 비자나무 苗木

○…최근 내장산의 식물조사등으로 다녀온 L 교수는 내장산관리에 대한 몇가지를 지적. 동양에서 최노령수로 알려진 원적암앞의 천연기념물인「비자나무」(700년생)에서는 자연파종된 묘목이 등산객들에 의해 도난당해버려 다른식물들이 번식하고 있는 것은 비자나무 노목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 귀하다 해서 마구 묘목을 뽑아간다면 세대가 끊겨버리는 만치 돌레에다 넓게 철책을 쳐서 자연번식이 되도록 서둘러야한다고.

L 교수는 5,000만원 짜리 화장실 건립도 중요하지만 자랑거리인 천연기념물의 보호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중요시해 달라고.

단풍성수기, 손不足管理所

山불단속등 奉仕者의 도움이 절실해

○…지난 10월31일~11월 1 일 내장산에는 하루 8만

명의 등산객이 몰려왔는데 25명의 관리소 직원들은 손 부족으로 찢절 매고 있었다고. …… 11월 1일에는 정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 계곡에서 놀던 등산객들이 낙엽을 주워 모닥불을 피우는 광경도 보였다고 걱정해 주었다.

계절에 따라 몇몇 국립공원엔 탐방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오는데 이런때는 인근공원의 관리요원들이 서로 돕는 방안이라든지 국립공원협회원을 비롯한 명예감시원(자원봉사자포함)들의 지원을받아 내장사 뒷쪽의 원적암계곡·금성폭포계곡등 자연보존지구만이라도 철저한 환경단속과 특히 탐방객들의「산불」만은 근절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경책을 써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개구리 表皮서 AIDS —암치료제 실험

개구리를 함부로 죽이지 말자

미국립소아보건발육소 마이클 더스도프박사팀은 최근 개구리의 표피로부터 신형의 항생물질을 발견했다고. 개구리의 상처부위가 더러운 물속에서도 굼지 않는데서 착안된 이 연구팀은 개구리 표피에서는 2종류의 펩타이드(두개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한 화합체)를 분비하는 사실을 확인.

연구팀은 개구리 표피서 얻은 펩타이드를 합성, 실험조사를 했더니 이 펩타이드는 아무런 독성이 없는데도 세균과 말라리아 원충과 같은 기생충을 간단히 죽이는 강력한 항생물질임을 알게된 것. 더스도프박사는 이 펩타이드를「마게이닌」이라 이름짓고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의 바이러스, 암세포등을 제거하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개구리의 연구결과 개구리 중에서도 아프리카산의 개구리가 아주 오랜옛날부터 더러운 물에 살아온 탓으로 면역기구가 진화하기 이전부터 원시적인 생체방어기구를 갖고 있어 강력한 펩타이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겨울철에 산야에서 개구리를 마구 잡아먹는 잡식가들이어…… 인류의 건강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개구리를 함부로 죽이지 말지어다. [j]

야생조수보호